

## 기술개발 통한 수출확대 공로 한국기계전서 대통령상 수상



김은갑  
(주)솔팩 대표이사

지난달 2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한국기계전에서 김은갑 (주)솔팩 대표이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포장기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이며, 업계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나라 포장기계 업계는 영세성을 면치 못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어려웠지만 최근 글로벌화되면서 자사 제품의 브랜드화는 물론 기술개발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으로 자체 기술개발실을 운영하고 있는 포장기계 업체가 늘어나면서 포장기계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술선진국인 일본을 비롯해 유럽까지 수출시장을 넓혀 품질과 가격면에서도 우위를 점해가고 있어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솔팩 역시 자체 기술개발에 주력, 솔팩만의 독특한 포장기계를 생산, 매년 수출시장을 넓혀가고 국내에서도 최고의 포장기계 생산업체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다.

(주)솔팩의 전신인 세진자동기에 입사하여 포장기계와 인연을 맺은지도 25년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계 개발에 몰두해 온 것이다.

그는 지난해에는 한국포장기계 대상 경영관리부문에서 중소기업청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고의 포장기계를 만들기 위해 설계, 제작을 직접 나서고 또한 납품된 기계들을 관리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발품을 파는 정성과 노력을 다해왔다.

지난 1996년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주)솔팩을 창업하여 유저들이 만족하는 완벽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 점차 인정을 받아 온 김은갑 사장은 그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포장기계를 만들기 위해 슬로건도 만들었다.

“정성드린 자본재, 희망을 담아 세계로”

이때부터 수출만이 살길이라는 각오로 세계시장을 두드려 매년 10% 이상을 성장하는 수출실적을 올렸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으로 매출액의 7~10%를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에서 하기 힘든 일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솔팩은 축적된 기술과 고객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다 편리하고 생산성이 높은 기계를 제작, 미국, 일본,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의 20여개국에 각종 파우치기계를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약 700여대를 공급하고 있다. 특히 수출품을 제작하면서 국내 가공업체의 기술수준을 한단계 높여 놓았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던 사셋포장기계와 파우치기계를 국산화 하고 수출함으로써 수입대체를 가져와 국내 산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 영업조직이 취약한 솔팩이 해외 개척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해외 유명 전시회에 참가하여 자사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다.

전시회야말로 한자리에서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현장 판매 및 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이었다.

2000년부터 해외 전시회에 참가하기 시작한 솔팩은 강화되고 있는 보호무역 장벽과 각종 규제를 뛰어넘기 위해 2006년 CE마크를 인증받았고 또한 자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2008년 5월에 '실링부의 오염방지를 위한 식품포장장치와 직선형 노즐을 채용한 다열예비포장장치'를 특허출원했다.

이와함께 회사의 내실도 기해왔는데 2004년 벤처기업, 2006년 클린사업장, INNO-BIZ 기업 인증, 경기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출포장투어업체선정, 2007년 수출기업화 사업체, 2007년 유망중소기업

등에 선정되었다.

선진국형 기업경영을 추구하는 김은갑 사장은 “기업에서 이윤이 창출되고 극대화되면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윤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는 과정으로 소년소녀 가장 및 장애인돕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려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없기를 바라는 생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다양한 사회복지차원에서 나눔을 갖기 위해 주변을 돌아보고 있다. 또한 더 나은 경영을 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자모임과 기술개발모임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와 지식을 얻기 위한 활동에도 열심이다.

모든 업종이 그렇듯이 협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김은갑 사장은 포장기계업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식 인정을 받는 사단법인화를 이루어 대정부 사업등에도 활발하게 나서고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포장기계를 생산, 수출, 수입하는 회사, 원부자재 공급회사, 포장기계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들이 유기적 관계를 갖고 포장기계업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며 포장기계 전문인력을 재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가 아닌 세계를 향해 뛰고 있는 김은갑 사장은 국내에서 경쟁해야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외국 기업과 경쟁해서 최고의 기업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기업이 아니겠냐면서 앞으로도 기술 개발을 통한 세계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대통령상 수상은 시작일 뿐입니다. 포장기계의 세계 최고상을 받아야되지 않겠습니까라며 반문하는 김은갑 사장의 표정에서 세계를 품고 있는 기세를 펼쳐가기 위해 또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ko]